



대영광송 (신비주의 성가)
Missa Regia Gloria

키레네 시몬의 고백 (생활성가)
박우곤 알렉시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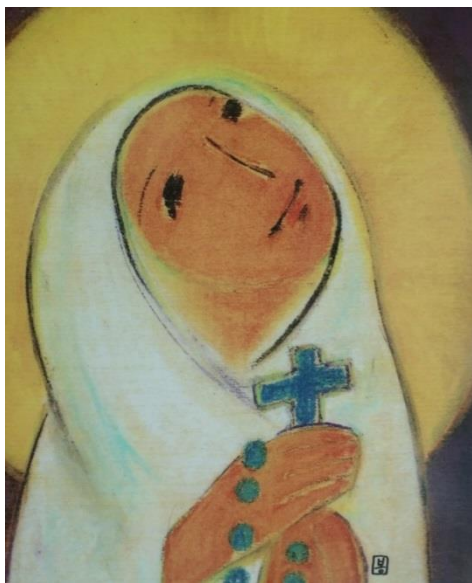


나의 모후, 나의 어머니시여,
나는 오로지 당신의 것 이오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오로지 당신 것 Totus Tu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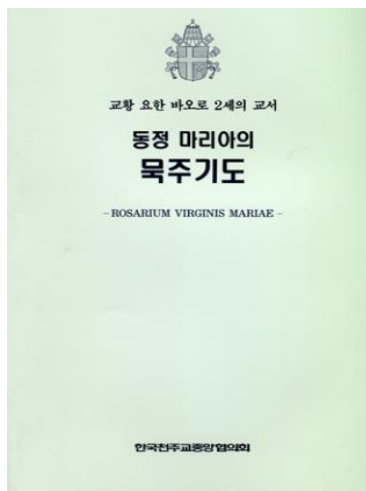
묵주기도 및 레지오의 활동



- 묵주기도의 기도문
- 묵주기도의 의미/역사/묵상
- 레지오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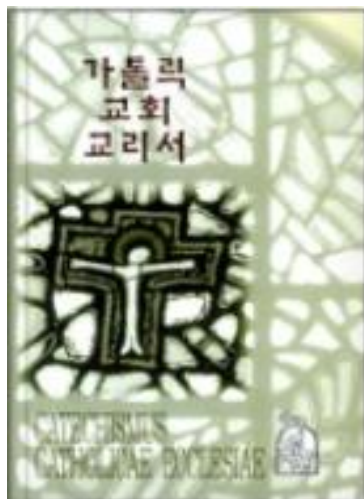


묵주기도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1항”

묵주기도는 성령의 인도 아래 많은 성인들의 사랑을 받고 교도권이 권장해 온 기도입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기도는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신심행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78항)

중세 서방 교회의 신심은, 대중이 성무일도 대신에 드리는 기도로서 '묵주기도'를 발전시켰다.



묵주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생애와 수난과 죽음, 영광의 신비와 덕행들을 공경하며 그 신비를 본받고 배우게 되는 **묵상기도와 염경기도**로 어우러진 **거룩한 찬미의 기도**

묵상기도

- 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생애와 죽으심과 영광의 주요한 신비에 대한 묵상

염경기도

- ① 주님의 기도 한 번으로 시작하여 성모송 열 번씩, 열 다섯 번을 외우면서 그와 동시에 거룩한 **묵주기도의 열 다섯 가지 신비** 중에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실천하신 **열 다섯 가지 주요한 덕행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묵주기도의 비밀”)



묵주기도의 의미

묵주기도는 그 소박한 구조 속에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마치 복음의 요약과 같습니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 신앙의 영적인 여정의 동반자로서 성모 마리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관상하고 복음의 핵심에 다가 가는 방법입니다.

묵주기도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고백입니다. 또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겠다는 다짐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묵주기도의 사도적 권고

“묵주기도만큼 아름답고 은총을 많이 내리는 기도는 없습니다.”
(비오 10세)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그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황 우르바노 4세)

“교회에서 인정한 모든 신심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로사리오 신심만큼 많은 기적을 베푼 것은 없습니다.” (교황 비오 9세)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보다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을 불러 내리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교황 비오 12세)

“시간전례를 포함한 거룩한 미사 다음으로는 거룩한 묵주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교황 비오 10세)



묵주기도의 기도문

시작기도 :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

사도신경 : 가톨릭의 핵심 교리, 성부/성자(환희, 고통, 영광)/성령
(공적지향 : 영원한 생명) “구원”

주님의 기도 :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 우리의 7가지 청원을 기도
마태오 6.9~15 루카 11.2~4

묵주기도의 시작부분

1998년 6월 23일 각 교구 평의회 단장들에게 발송된 공문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영광송 1번 을 바치도록 함



목주기도의 기도문

성모송 : 천사의 인사말(루카1.28), 엘리사벳의 인사말(루카1.42)
: 성모님께 대한 청원기도 (우리의 삶과 죽음의 순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테오토코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13)

영광송 : 일생을 충실히 주님 뜻에 따르는 이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믿음

(성모님의 일생이 온전히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계심을 묵상)



묵주기도의 기도문

구원송 : 구원을 비는 기도, 파티마의 기도

파티마 발현 성모께서 버림받은(자비가 필요한) 영혼을
위해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줌

성모찬송 : 묵주기도를 바치는 목적인 공적지향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레지오의 수호성인 몽포르의 성 도미니코 마리아)

까떼나 : **마리아의 노래** (루카 1.46~55, 마니피캇)

엘리사벳의 인사말에 대한 마리아의 찬미노래

마침기도 : 7가지 믿음, 버림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마리아께 대한 굳은 신뢰심,
사랑으로 불타는 힘찬 믿음, 바위와 같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레지오의 힘을 북돋우는 용감한 믿음, 레지오의 불기둥이 될 믿음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



묵주기도 역사

구약성경의 시편

3세기경 아일랜드 수도자/사막의 은수자

“시편” 150편 전체, 또는 50편씩 3개로 묶어서 성무일과로 바치는 전통

주님의 기도 시편

글을 모르는 신자/수도자(비천한 이들의 성무일과 기도)

시편 대신 “주님의 기도” 150번 또는 50번씩 3개 묶어서 바침

(횃수를 세기 위해 작은 돌멩이, 곡식 알을 실로 묶어 굴리면서 사용)

성모 시편

6세기경 '천사의 인사말'과 '엘리사벳의 인사말'로 성모님 찬양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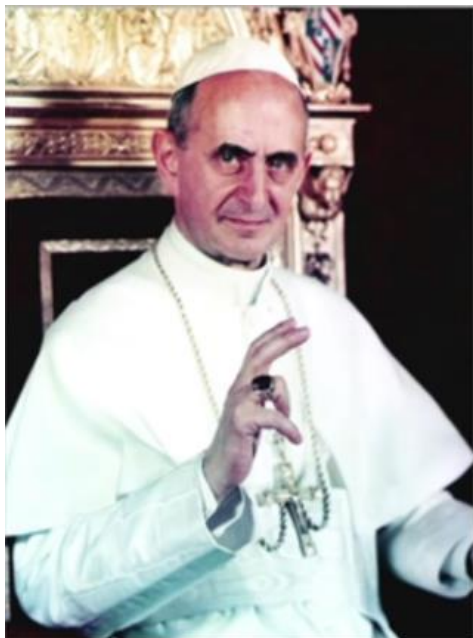
1198년 ▶ 주님의 기도나 사도신경 처럼 암송을 규정 (오돈 주교)

1440년 ▶ 성모송의 후반부 청원기도 추가 (베르나르디노 성인)



묵주기도 역사

묵주기도와 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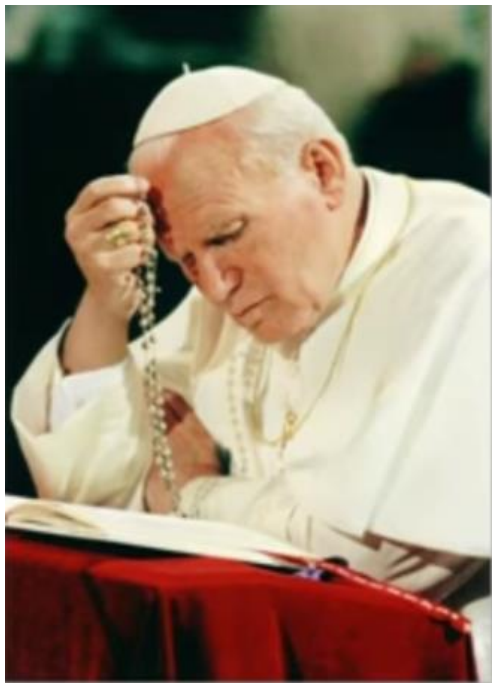
'성모송'을 되풀이하여 바치는 것은 로사리오 기도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150번이라는 횟수는 '시편'과 어떤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신심 행위의 기원에까지 소급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횟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각 개별 신비에 10회씩 할당되어, 세 주기(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안에 배열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50회씩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사리오 기도의 일반 형태가 되어 대중적인 신심 형태로 채택되고 교황의 권위로 인준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 권고 “마리아 공경” 49항)



묵주기도 역사

묵주기도와 시편



그리스도 생애의 수많은 신비들 가운데 일부만이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 폭넓은 신심 관행으로 바치는 묵주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은 지금까지 바쳐 온 묵주기도의 형식이며, 이는 시편의 총수에 상응하는 150이라는 숫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19항)



묵주기도 역사

묵상구절 추가

카르투시오 수도회 회원 도미니코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기도 방법

복음말씀을 기초로 50개 묵상구절을 정리, 성모송과 함께 바침

-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 14개 묵상 구절
- 예수님이 수난과 죽음 : 23개 묵상 구절
- 예수님의 부활 : 7개 묵상 구절
- 공생활 : 6개 묵상 구절





묵주기도 역사

오늘날의 묵주기도 형태 완성(1494년)

카르투시오 수도회 알라노 복자



- 소리 기도의 암송 과 인간 구원의 신비 묵상과 결합된 기도
- 15개의 신비 선포 및 주제별 정리 : 그리스도 육화의 기쁨 (환희의 신비), 수난의 고통(고통의 신비), 부활의 영광(영광의 신비)
 - :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수도 규칙서 ▶ 15장 10개의 글 응용
 - : 150 시편의 수를 기본 ▶ 열 번의 '성모송'을 반복하는 15개의 묵상 구절로 세분화
 - :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를 공경 ▶ 5개씩 묵상 구절을 묶어 3개의 화관(환희, 고통, 영광)으로 정리
- 매 단마다 묵상구절의 선포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송'을 10 번 반복



묵주기도 역사

묵주기도의 대헌장(1569년)

16세기 중반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의 영향
: 신비 묵상에 대한 열다섯 구절이 검토,
묵주기도는 일정한 통일성 생겨남

1569년 교황 비오 5세 칙서 “로마 교황들의 주로” 반포

: “묵주기도의 대헌장”이라 불림, 묵주기도를 바치는
형식에 대해 언급한 첫 문헌

(1568년 성무일도 완성, 1570년 로마 미사 경본 정리)



묵주기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형식을 갖추어 왔으며, 비오 5세 성인 교황이 축성한 묵주기도의 형식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2세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17항)



묵주기도 역사

영광송의 추가



1613년 매 단의 끝기도로 영광송이 추가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부께 이끌어 주심을 드러냄

시간 전례를 마무리하는 형태에서 영향을 받음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매 단의 끝기도로 '영광송'을 노래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의 고유한 구조에 다가서게 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34항)



묵주기도 역사

묵주기도의 전파

도미니코 수도회를 중심으로 전파 (알비파 이단의 회개)

대중적인 기도로 정착

18세기에 이르러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기도로 정착

교황 레오 13세(묵주기도의 교황)

: 묵주기도와 성모신심 관련 회칙 반포

- 묵주기도 11개 회칙 & 성모신심 7개 회칙 반포
- 묵주기도 성월 선포(1883년 9월 <최고의 사도직> 회칙)
- * 성모 호칭 기도에 '묵주기도의 모후'를 추가
- *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묵주기도 역사

빛의 신비 추가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묵주기도의 해 선포
(2002년 10월 - 2003년 10월)

- 빛의 신비로 보완하고 묵주기도 방식에 대한 제안
그리스도의 세례와 수난 사이의 공생황의 신비를 묵상
- 관상기도와 복음의 요약으로 묵주기도를 장려
- 자녀와 가정을 위한 묵주기도 장려
- 묵주기도 요일 배분



'빛의 신비'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 9.5) 라고 하신 말씀에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공생황을 선포하고 묵상하도록 이름 지어졌습니다.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그리스도의 **공생활**에 대한 **묵상**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사적**으로 드러내는 **신비**

빛의 신비

‘복음의 요약’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강생과 드러나지 않은 생활 (**환희의 신비**)을 묵상한 다음, 그리스도의 수난과 고통(**고통의 신비**), 부활의 승리(**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공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몇몇 순간들(**빛의 신비**)을 묵상해야 한다.

-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19항

세례성사

혼인성사

견진성사

1. 세례 받으심 2.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 3.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체성사 성품성사

4. 거룩하게 변모하심

5. 성체 성사를 세우심



관상기도인 묵주기도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기도문만을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6세)

그리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
풀이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안다.’ (마태 6.7)고 하신 예수님의 권고를 거
스르게 될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묵주기도의 신비 묵상 방법

신비 낭독

: 신비를 낭독 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별한 사건이나 순간을 향하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 성서적 토대를 제공하고 묵상에 깊이를 더하려면, 각 신비를 선포한 다음, 상황에 따라 길거나 짧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성서 봉독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침묵

: 말씀의 경청과 묵상은 침묵으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신비를 낭독하고 말씀을 선포한 뒤에는 제시된 신비에 얼마 동안 관심을 집중한 다음에 소리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박상운 토마스 신부님의 신비 묵상 방법

신비 선포

신비를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 생애의 특별한 사건과 순간을 지향합니다.

성화상 묵상

성화나 성상을 바라보며 깊게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특정한 신비에 집중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 봉독

상황에 따라 길거나 짧게 그 자리나 신비 주제에 어울리는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은 묵주기도 묵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 묵상

신비 선포 주제와 관련된 성경 봉독 후에 말씀 묵상(적절한 설명/해설)을 합니다.

침묵

성경 말씀의 경청과 묵상은 '침묵'으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침묵 가운데 얼마 동안 신비에 관심을 집중한 다음, 소리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일별 묵주기도 신비

묵주기도 신비 요일						
2002년 10월 16일 이전의 신비 선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환희	고통	영광	환희	고통	영광	영광
'빛의 신비' 보완으로 이루어진 신비 선포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환희	고통	영광	빛	고통	환희	영광
전통적 신비 묵상 요일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주님의 날
1569년 비오 5세 교황에 의해 기도문과 형식을 표준화			최후의 만찬	주님의 죽으심	마리아의 성격	주님의 부활
성목요일 : 성체성사 제정			파스카 성삼일			
성토요일 : 주님의 날을 안내 역할 전통적으로 성모님께 봉헌하는 축일을 지냄						



전례시기별 묵주기도 신비

영광 : 대림1주일~12월16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환희 : 12월17일~, 오신 주님의 성탄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생활
하며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며

주님성탄대축일부터 ~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강생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생활
하며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며

주님부활대축일 ~ 성령강림대축일
우리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묵상하며

재의 수요일부터 ~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묵주기도의 은총



묵주기도는 아픔과 두려움, 기쁨과 감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느님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을 변화되도록 합니다.

묵주기도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